

F1지원법 표류...대회 차질 빛나

여야 대치속 민생·지역현안 장기 방치 비정규직법 등 9월 국회까지 '울스톱'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끝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를 고려하고 있지만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장외 정치로 대어투쟁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야당 내 분위기가 비정규직법 등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도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지원법' 통과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경주장 건설비용의 국고 지원과 F1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되는 등 내년 10월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F1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해 8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재정에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동을 건 장외투쟁을 길게는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하며 등원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생법안은 자칫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더라도 정기국회는 애초 예산국회인데다 여야 공방의 장인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10월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민생현안은 자칫 여야 정치권의 시야 밖으로 내팽개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이 사실 상 비워지면서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제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악덕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도 여전히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도 미디어법 후폭풍으로 인한 '정치 실종' 속에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

野 “비정상 투표기록 34건” 與 “소모적 정치공세 그만”

■ 미디어법 재투표·대리투표 공방 격화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자투표 관련 기록을 제시하며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 원천무효'라는 입장 아래 재투표 및 대리투표 공세를 펴 이를 풀려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리투표의 증거확보를 위해 구성된 민주당 채증반 팀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시 전자투표시스템 기록 분석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반복적인 찬성 로그 기록은 17건”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자투표 과정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이나 반대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투표표지가 완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버튼을 두 번 이상 누른 한나라당 의원이 17명이나 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표를

끝낸 자리에서 투표시스템을 재차 가동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증반 분석 결과, 반대버튼이 눌러진 이후 취소과정을 거쳐 다시 찬성버튼이 눌러진 경우도 17건 존재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석에서 투표방해 행위를 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본회의 CCTV(폐쇄회로회선) 33대의 영상자료를 확보, 전자투표시스템 기록과 대조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시스템에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시간대와 CCTV의 시간대별 영상을 대조해 본인이 직접 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정할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우경 대변인은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았다 보니 입법부의 수장자리가 얼마나 책임 따르는 자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김 의장은 의정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혹 제기를 일축하면서 “소모적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응수했다.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공세의 초점을 맞춘 모양새였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재투표 논란에 대해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응답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조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부결됐으며, 그 이후 재투표 절차는 표결절차 부준제 또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해고 공공기관이 되레 앞장”

민주당 강운태 의원 비난

비정규직 해고에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1천329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6천740명 가운데 지난 1일부터 16일 사이 4천839명(71.8%)이 해



고됐고, 1천901명(28.2%)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민간부문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5천 291명 가운데 70.6%인 3천735명이 해고됐고 29.4%(1천556명)가 정규직화 됐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총 1천449명 중 76.2%인 1천 104명이 해고됐다. 비정규직 해고율이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

이다.

또 임금수준도 비정규직의 경우 월 평균 123만2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56.9%(216만 7천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00만 대량 해고설을 퍼뜨리는 등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민간사업장보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의중을 읽고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것이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을 2년이라는 기간을 뒤편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출산·육아 등 한시적 결원 충원이나 전체 고용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 의식 유지하며 회복세”

면회 온 이희호 여사에게 고개 끄떡

폐색전증으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식을 유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26일 말했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와 의료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떡이는 등 의식을 유지하고 있고 체온과 맥박, 혈압도 여전히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또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진한테 들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증세로 지난 15일 중환자실에 입원한 다음날 호흡이 가빠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했다가 상태가 호전되면서 22일 오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23일 폐색전증이 발병해 다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받고 있다.



26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장관급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100일 투쟁은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민주당 채증반 팀장 전병헌 의원이 전자투표시스템 기록을 보여주며 신문법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소 사라진 ‘미스터 스마일’

정세균,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 올인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결기만이 흐르고 있다.

최근 그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눈빛부터 달라졌다. 다른 사람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에도 단식은

이어갔고 지난 24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끌어내면서 몇새 만에 단식을 풀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의료진의 만류에도 25일 저녁 서울역 규탄집회 참석을 강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 대표는 “무효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싸

우자”고 독려했다. 정 대표는 또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듯 내주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폐쇄하고 보좌진을 해촉키로 했다.

정 대표의 결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서울역 집회를 시작으로 최소한 앞으로 100일간 전국 순회 시국대회와 함께 거리 홍보전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특히 정 대표가 제시한 ‘대장장’의 기간이 100일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100일 후면 재보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장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 강의요일 및 시간**
· 야간(매주 금요일) 19:00~21:00
- 교육기간**: 2009년 9월 7일~12월 18일(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 (실습70%, 이론30%)
-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원서교부및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7월 13일(월)~8월 31일(월)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심관4층)
- 등록방법**(수강료: 200,000원)
· 직접방문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인),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행 피켓,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담당교수**: 한 상 태
- 한국응원연설인총연합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설팀 교수 - 대통령상 전국응원연설팀회 대표본부장
- 각종 스피치능력경시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연설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 서단법인 한국응원연설회 광주본부 회장
※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용법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공장급매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 대지: 13,200㎡ (약 4,000평)
- 건물: 6,600㎡ (약 2,000평)
- 냉동저온창고 3,300㎡(약 1,000평)
- 일반창고건물 3,300㎡(약 1,000평)
- 현재 냉동저온창고 성업중
- 물류가능
- 기계기구 일체 영업권 포함 급매
- 가격: 상담 후 결정

010-3617-8810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획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	--------------	------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단지
힐의인도인택지
생태대체육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요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120억
광주지역 농지
주요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방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로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 급매물
자연녹지: 3800평·대형차진입구 6차선로
생산녹지: 2800평·평동광대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북지점 골짜기 속사들)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상촌동 260평
2중구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여자가 만든 더 센놈

강하게 흔들어주시는 날은 기분이에요.

살아있는 보약이란 객체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센 놈이라고 합니다. 10대 때부터가 부부생활에 위기를 겪어다가 멀쩡히: 발발이 없을거라고 교만만이 폭히까지 내고 깨달아내는 성공이였습니다. 반지반한 살려만없이 컷드한게 자들의: 혼급어주브르 화음이 아니라는 것 같았다면서 남유은 재야처럼 해방크나 해보삼장은 더 위들을 애용하게 됩니다. (미안남친에게는 귀레해삼음) 미정 연차 브로콜리 의회 사인 기제를 할 수 있을.

저렴한 가격 98,000원 (4차비연드랑 추가시 30,000원)

요부로 유혹하는
Sok gung hap

이 세상에서 댓기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답니다. Sok gung hap 으로 아슬비처럼 속속히 찾아 들어 여자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희에 기쁨이 넘쳐나면 힐공시 문명해 살짝 사 용하면 내 남자의 바람기를 명기로 확실해 잡는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하기 나를 이라고 하잖아요.

(성인판매신고증 제 19-5301호)
상담 02)2677-0231~2
전화 010-5296-4114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